

오마이걸~저스틴 비버까지 삼켰다...K팝계 잇단 인수 합병 왜?

연예인은 리스크 관리 불안정·다각화 필수

코로나 시대, 확실한 IP 보유 기획사는 한정적

엔터테인먼트사들의 잇따른 인수·합병(M&A)으로 K팝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9일 가요계에 따르면, 그룹 '마마무' 등이 속한 RBW는 최근 W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다. WM에는 대세 걸그룹인 오마이걸을 비롯 B1A4, 온앤오프가 속해 있다.

지난 2월에는 어비스컴퍼니가 선미, 어반자카파, 박원익의 소속사인 메이크어스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합병했다.

하이브(옛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일찌감치 인수에 공을 들였다. 지난 2019년 여자친구가 속한 쏘스뮤직을 시작으로 세븐틴·뉴이스트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지코 소속사 KOZ 엔터테인먼트 등을 인수했다.

최근에는 저스틴 비버·아리아나 그란데가 속한 미국 연예 기획사 이타카 홀딩스 지분 100%를 인수해 한국과 미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들썩이기도 했다.

가요 엔터테인먼트사의 인수 합병이 드문 경우는 아니다.

앞서 SM엔터테인먼트는 과거에 인피니트가 속한 울림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 적이 있다. 또 2018년에는 배용준의 배우 소속사 키이스트, 콘텐츠 제작사인 FNC에드컴처를 인수해 주목 받았다.

또 모델 에이전시 에스팀, 윤종신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에도 지분을 투자했다. SK플래닛 광고사업부(M&C)를 인수하며 사업 영역

도 넓혔다.

지난 2018년 설립된 카카옴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 BH엔터테인먼트 등 사나이픽처스·영화사 월광 등 영화 제작사 그리고 공연제작사 쇼노트까지 잇따라 인수했다. 지난 2월 웹툰 등을 담당하는 카카오페이지와 합병, 카카옴엔터테인먼트가 됐다.

이들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최종적으로 꿈꾸는 건 디즈니다. 디즈니는 그간 픽사 스튜디오, 마블 스튜디오, 루카스필름, 21세기폭스 등을 잇따라 인수하면서 덩치를 키웠고, 현재 세계 최고의 문화 콘텐츠 회사 '디즈니 제국'을 이뤘다.

디즈니는 캐릭터, 이야기 관련 지식재산권(IP)이 무궁무진하다. 이를 통해 문화 콘텐츠뿐만 아니라 식음료, 패션, 문구 등 다양한 사업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다.

연예인이 한번 스타덤에 오르면 그 파급력은 중소 기업 이상이다. 특히 세계적 그룹으로 자리매김한 방탄소년단(BTS) 같은 경우엔 국가 경제에 영향을 줄 정도다.

하지만 연예인은 기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사람이라,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일부 소속사에 속한 몇몇 연예인들의 사건, 사고가 예다. 구설 한번 휘말리지 않은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군 입대는 피할 수 없다. 한동안 하이브의 약점으로 멤버들의 군백기가 지목됐다.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제이 발빈, 데미 로바도 같은 팝스타들이 속한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한 뒤

에야 방탄소년단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씻겨나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 연예인 기반의 사업에 대한 불안정성이 더 가중됐다. 투어와 팬 대면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회사의 수익 구조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확실한 IP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일종의 '항행 보증수표'다.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공연이 오프라인 월드투어 때보다 많은 수익을 벌어들인 것이 예다. 플랫폼 변화에도 팬층을 안정적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

SM도 슈퍼엠, 슈퍼주니어, 샤이니 같은 인기 K팝 그룹을 대거 보유했기 때문에 세계 첫 온라인 유료 콘서트 '비온드 라이브'를 통해 꾸준히 스트리밍 공연을 선보일 수 있다.

이성수 SM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지난해 9월 '2020 서울국제뮤직페어'(뮤콘)의 기조연설 '컬처 테크놀로지, IP 산업 그리고 인택트'에서 "팬덤 상황에서 IP 산업의 황금이 도래했다. 넘어야 하고 극복해야 할 시기이자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디즈니가 자신들의 IP 재국을 이뤘듯, K팝이 이 시기를 극복하고 우리의 재국을 이룰, 음악의 첫 번째 장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대에 IP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획사는 몇 안 된다. 라인업이 다양하지 않고, 외부 악재를 버텨낼 맷집 역시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중형 제작사들의 인수 합병은 라인업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덩치를 불러 맷집을 키우려는 의도가 크다.

K팝 업계는 당분간 인수 합병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속 가수의 해외



투어 등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앨범 발매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소속 가수가 다양할수록 할 수 있는 시도가 많아진다.

실제 몇몇 기획사는 지분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독립 레이블을 만든 한 인기 밴드도 네트워크를 지닌 회사에 들어가는 것을 두고 얘기하고 있다.

중견 아이돌 제작사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덩치가 큰 회사가 버티기 유리하기 때문에 당분간 엔터사의 몸집 불리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봤다.

특 인·합병이 아니더라도 연대하는 경우 역시 늘어나고 있다. SM과 JYP는 온라인 전용 콘서트 플랫폼 '비온드 라이브'로 뭉쳤다. 하이브는 YG플러스의 지분 18%를 취득, 블랙핑크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 혈맹 관계를 구축했다. JYP

의 수장 박진영과 피네이션의 수장 싸이는 힘을 합쳐 SBS TV '라우드(LOUD)'를 통해 보이그룹 제작에 나선다.

그런데 인수·합병과 협업은 서로 규모가 맞거나 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생겨난다. 코로나19 속에서 안정화를 꾀하면서 모험 역시 줄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형 기획사들은 갈수록 소외당하고 있다.

협업 상태를 물색하고 있다는 중견기획사 관계자는 "이름 있는 가수가 속하지 않은 기획사들은 협업 과정에서 명함조차 내미지 못한다"면서 "코로나19가 빈부격차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대형 기획사의 몰량 IP 공세 속에서 과거 소형 기획사의 가수가 감쪽 주목 받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대한민국 여자 컬링 레전드 '팀킴', '노는 언니'에 뜬다

오늘 오후 8시50분 방송

대한민국 여자 컬링의 살아 있는 전설인 '팀킴'이 '노는 언니'에 뜬다.

평창 동계 올림픽 주역인 팀킴은 13일 오후 8시50분 방송되는 E채널 '노는 언니'에서 노는 언니들을 컬링 세계로 이끈다.

팀킴은 지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컬링 종목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전국에 '팀킴 신드롬'을 일으켰다.

언니들은 최근 강릉으로 이적한 팀킴에게 컬링을 배운 뒤 팀 대결을 펼친다. 언니들은 스톤과 브러쉬 등 처음 보는 장비들에 궁금증이 폭발, 질문 세례를 퍼붓는다. 무제는 어느 정도인지, 가격은 얼마인지 등을 묻는다.

언니들의 몸 상태를 고려한 팀킴의 맞춤형 교육도 웃픈 웃음을 자아낸다. 특히 한유미에게는 캐나다 할머니들이 주로 하는 투구 자세를 추천해 대폭소가 터졌다는 후문이다.

그런가 하면 냅다 스톤을 밀어버리는 박세리 투구를 보자 팀킴은 "이것이 바로 시장님들이 시구하는 자세"라며 너스레를 떨기도 한다.



공승연 첫 장편 영화, '혼자 사는 사람들'

다음달 개봉...1인분의 외로움 간직한 우리들의 이야기 담은 영화



배우 공승연의 첫 장편영화 '혼자 사는 사람들'이 5월 개봉을 확정하고 티저 포스터를 공

개했다. 영화 '혼자 사는 사람들'은 단편 '굿 파더'로 주목받은 흥성은 감독의 장편 데뷔작으로,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부분에 공식 초청됐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1인분의 외로움을 간직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다양한 세대의 1인 가구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묘사해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혼자 사는 사람들'의 티저 포스터는 반복되는 복도식 아파트 전경과 함께 연속으로 담긴 인물 이미지가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 현관에 붙은 폴리스 라인 또한 시선을 끈다.

특히 '오늘도 1인분의 외로움을 삼키는'이라는 카피라인이 수많은 홀로족들의 마음에 닿으며 공감을 모은다.

영화 '혼자 사는 사람들'은 2021년 올해의 가장 따뜻한 문제작으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김정현, 3년 전 '시간' 하차 논란 재점화

배우 김정현이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소속사와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과거 태도 논란이 재점화됐다.

12일 방송가에 따르면, 김정현이 지난 2018년 7월 MBC TV 드라마 '시간' 제작발표회에서 상대 여인 배우 서현과 지나치게 거리를 둔 모습이 최근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시종일관 굳은 표정의 김정현은 서현이 팔짱을 끼려하자 이를 거절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서현이 김정현 때문에 눈물을 터뜨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최근 일각에서 "드라마 스테프에 따르면 김정현은 애초 '시간'이 장르물인 줄 알고 출연했으나 점점 멜로신이 등장하며 제작진과 마찰을 빚었고, 결국 제작발표회 전날 술 자리에서 의견 충돌을 넘어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정현은 '시간' 종영 4회를 앞두고 섬식 장애와 공황 장애를 이유로 중도 하차했다. 이와 별개로 이날 일부 매체가 김정현이 '시간'에서 중도 하차한 이유 중 하나로 서예지를 지목하면서, 다양한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김정현은 '시간' 하차 이후 약 11개월 후 tvN '사랑의 불시착'을 통해 성공적으로 복귀했다. 최근 인기리에 방송된 tvN '철인왕후'를 통해



서도 주목 받았다. 한편, 김정현의 소속사 오엔터테인먼트는 그와 2016년 맺은 전속계약의 기간에 대한 조정을 최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에 신청했다. 김정현의 전속계약이 오는 5월이면 끝나지만, '개인적인 일로 생길 활동 공백 11개월을 (전속계약 기간에서)배제한다'는 내용과 관련, 양측의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컴백홈', 송새벽·라미란·이범수·오대환·이경영·인교진

"다채로운 장르에서 활약한 연기와 배우들의 시너지 기대된다"



영화 '컴백홈'이 배우 송새벽, 라미란, 이범수 등의 캐스팅을 확정하고 촬영에 들어

갔다고 12일 배급사가 밝혔다. '컴백홈(가제)은 고향을 떠나 새로운 삶

을 시작하고자 발버둥치는 한 남자가 고향에서 옛 친구들을 재회하며 예상치 못한 사건들에 휘말리면서 겪는 이야기를 그린 코믹 드라마다.

송새벽이 주인공 '기세' 역으로 분한다. 아버지와의 연을 끊고 서울로 상경해 개그맨으로 성공을 꿈꾸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자 방황하게 된 고향에서 인생을 뒤바꿀 사건을 맞닥뜨리는 인물이다.

라미란은 15년 전 친구를 서울로 떠나보낸 뒤 홀로 딸을 키우며 고향을 지키고 있던 '영심' 역을 맡았다.

이범수는 '기세'의 고향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발단 가운데 있는 강돈을 연기한다. 이밖에 오대환, 이경영, 인교진 등도 출연한다.

배급사 측은 "코믹 연기로 다시 돌아온 송새벽과 라미란, 이범수 그리고 이경영, 오대환 등 다채로운 장르에서 활약한 연기와 배우들의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